



“국가 과학기술 정보의 요람 만들터”

❶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어떤 기관입니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아직 3년여밖에 되지 않아 연구원 명칭이 다소 생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KISTI가 출범하게 된 동기는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던 정보관련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 국가 지식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 산하에 있던 산업기술정보원(KINITI)과 과학기술부 산하의 연구개발정보센터(KORDIC)를 2001년 1월에 통합하여 새로이 발족한 국책연구기관입니다.

KINITI는 1962년에 출범한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KORSTIC)가 전신이며 국내외의 과학기술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 관리, 분석하여 국내 R&D발전의 일익을 담당하였던 기관이었습니다. 1993년에 출범한 KORDIC은 국가과학기술정보유통 시스템의 개발 및 구축, 국가 슈퍼컴퓨팅 자원과 초고속연구망 등의 정보인프라를 구축·운영하던 연구기관입니다. 두 연구

소의 통합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발전을 책임지는 지식정보기관으로 거듭 도약함은 물론 첨단 미래 정보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역량을 발휘할 것입니다.

❷ 우리 나라 과학기술 정보분야의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자리 매김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오셨는지요

과학·기술은 물론 산업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관리하고, 정보 관리와 유통에 관한 기술 정책 표준화 등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는 ‘국가과학기술 종합유통 정보센터’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슈퍼컴퓨팅을 기반으로 연구전산망 등의 연구개발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 지식정보 인프라’의 연구개발 및 서비스 체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한 과학기술 하부구조를 강화하여 국가 과학기술 진흥과 산업의 발전을

조영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

통해 경제발전과 국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 KISTI의 그 동안의 노력에 대한 외부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우리 KISTI는 통합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감한 드라이브를 시도한 결과 너무도 많은 변화와 성장을 가져왔고, 외부 평가도 높은 편이었습니다. 두 기관이 통합된 지 2년 만인 2002년도에는 공공기술연구회가 매년 평가하는 기관 평가에서 만년 꼴지의 수모를 떼어내고 최우수기관(1등)으로 선정되는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과학기술분야의 정보와 지식 자원을 효율적으로 유통·연계하는 '국가 과학기술 지식관리 체제 구축'과 고성능 컴퓨팅 환경의 구축, 첨단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국가 과학기술 슈퍼 그리드 체제 구축' 사업이 단계별로 훌륭히 추진된 점과 연구원들이 각자의 노력과 일치된 마음으로 이루어낸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2002년 '정보통신의 날'에는 국내 인터넷 활성화와 정보통신 기술향상을 통해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우수연구기관에 수여되는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원이 실시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조직운영 개선실태' 감사에서 경영혁신성과 모범사례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03년도 말에는 참여정부로부터 '과학기술 지식정보 인프라 전담기관'으로 인정받아 국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고건 국무총리로부터 최우수기관에 수여되는 깃봉을 받는 쾌거도 이루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및 분석, 그리고 관리를 위한 연구사업은 상당한 결실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숙원이었던 연구사업으로는 초고속연구망(KREONET)의 기가백본을 구축하였으며, 슈퍼컴퓨터 3호기의 구축을 완료하여 '테라컴퓨팅 & 네트워킹 시대'를 개막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연구원은 출범 2기를 맞이하여 기존의 사업들을 핵심기능 중심으로 더욱 고도화시키고, 21세기 고도 지식정보시대의 첨단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가 차원의 선도를 위해 기반 연구와 차세대 지식정보인프라서비스 체제를 강화하여 현재와 미래가 조화된 연구사업 추진을 한층 도모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종합정보포털체제의 완성 ▲동북아 정보유통 허브체제 기반 구축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한 R&D분석정보 지원체제의 구축 ▲바이오, 나노 등 국가전략 기술분야의



고기능 첨단정보 지원기반 확충 ▲테라클러스터시스템의 개발 ▲초고속 네트워크에 기반한 국가 그리드 및 e-R&D체제의 본격 추진 ▲지역의 정보인프라 구축과 지원을 위한 지역혁신 클러스터 구축 등 국가 과학기술 혁신의 중추적 기관으로 성장함은 물론 세계적인 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하나하나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 이제 우리도 세계가 주목할 만한 연구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KISTI의 장기 발전 계획은 무엇입니까

KISTI는 21세기 고도 지식정보시대의 첨단 지식정보인프라 구축을 선도하는 세계 초일류의 정보전문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장기 발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확립과 지식정보인프라 자원의 지속적인 확충입니다. 이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서비스, 국내외 자원의 원-스톱 이용체제를 조기에 구현할 것입니다. 세계 Top 5 수준의 과학기술정보, 슈퍼컴, 연구망의 양적·질적 확보는 물론 사업성과의 대국민 확산 및 경제적 효과 증대를 위한 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두번째는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지식정보인프라 선도·허브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 체계 강화, 공동연구사업의 추진을 활성화하고, 국가과학기술도서관, 국가 MdR 구축과 그리드 체제의 중심기능을 확보하여 국가 지식정보 인프라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와 법, 제도 정비 또한 강화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핵심 및 고부가 가치 중심으로 연구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핵심기능·경쟁우위기능 중심으로 연구사업의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메타정보DB, 고급분석정보, 첨단·고기능 정보, 맞춤정보서비스 강화와 슈퍼컴 / 연구

Interview

망의 고부가가치 응용 서비스 개발·제공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세대 지식정보 인프라 구축기술 연구 및 국제 협력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MdR, Santic Web, e-Science 등 차세대 핵심기술 연구개발 강화와 지식정보 인프라 간 상호 융합 분야의 서비스 개발을 확대하고, 지식정보인프라 활동의 국제화 및 서비스 교류를 위한 국제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는 것입니다.

④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확충을 강조하셨는데, 21세기 지식 기반사회에 대한 KISTI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21세기는 20세기 산업화 시대를 넘어 바야흐로 지식과 정보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기반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부의 축적방식이 상품에서 지식으로 전환되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사회가 진전되고 있으며, 세계최고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무한경쟁시대가 도래된 것입니다. 이러한 혁명적 시대의 변화 속에서 국가차원의 과학기술 지식정보인프라의 구축이야말로, 새 천년 한국의 미래를 가늠하는 좌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지식정보인프라의 중심센터 역할을 수행하는 KISTI는 국무총리실 공공기술연구회 산하 정부출연 전문지식 연구기관으로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기 위한 시대적 사명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의 산업 및 과학기술 정보유통체계구축에서 슈퍼컴퓨터와 연구전산망을 연계한 명실상부한 국가지식 정보인프라구축의 선도적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하며, 특히 차세대 기술개발(BT, IT, ET, NT, CT, ST 등)과 같은 새로운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을 주도해 나갈 고성능 지식인프라에 기반을 둔 강력한 과학기술지식인프

라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하고자 합니다. 특히 향후 급변하는 첨단 지식정보 수요에 대응하여, 해외 과학·기술·산업동향의 신속한 수집·서비스와 정보분석 활동 및 기술의 산업화 연계·지원을 확대 발전시켜 산업계 및 과학기술계에 신속한 첨단 분석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명실공히 21세기 '국가과학기술혁신 체제' 구축의 중추기관으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의 기반은 KISTI가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펼쳐질 지식정보사회를 KISTI와 함께 하십시오. 지식정보시대에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이공계 기피현상이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공계 기피현상은 어떠한 사회적인 특정 요인보다는 정책, 교육, 문화, 경제 등 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들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나라는 이미 과학기술 경쟁력이 세계 10위권으로 진입은 하였으나, 사회적 토대가 되는 과학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저변은 아직 미지수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공계 졸업자에 대한 혜택과 지원미흡 등 사회정책이 빈약하였고, 문화적인 요인을 살펴보면 과학자 경시의 사회적 풍토와 지도층 진출의 어려움, 고용의 불안정성, 과학문화의 대중성이 매우 미흡했습니다. 또한, 교육적 요인의 경우 초·중등 과정의 수학/과학 학습의 난해성과 대학입시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졸업 후 학교와의 연계 부족과 열악한 연구시설 등이 그 원인에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제일 커다란 문제는 인문사회계에 비해 취업 후 경제적 처우가 상대적으로 낮고 취직이 되더라도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인문사회계의 경우 사회진출시 적응이 용이하지만 이공계의 경우 직업의 안정성 부족, 급속한 기술의 변화로 조기에 정년퇴직이 발생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 지도층으로의 진입이 어려워 이공계 기피 현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안정적이며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마련될 때 이공계 진출 러시를 이루리라 짐작됩니다. 우리 KISTI는 이공계 기피현상과는 조금 상이할지 모르겠지만 이공계의 활성화와 사회 복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고자 '고경력 과학자' 들을 모셔놓고 젊었을적 활발했던 연구경험의 노하우를 재발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술력 강화만이 국가경쟁력을 살찌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KISTI가 고경력 과학기술자 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성과는 어떠한지요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정년퇴직하신 과학기술자들의 잠재능력은 아직도 무한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그 분들의 경험론적인 노하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수준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경험적인 차원에서 연구경험이나 강의했던 내용 또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아이디어 등을 A4 용지 4~5장 내외의 원고량으로 정리해주시면 약간의 사례를 하는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정년퇴직하신 40여 분이 참여하셨는데, 보내주신 옥고들은 젊은 과학기술자들이 놀랄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KISTI의 정보탐색 고객들이 모두 그 프로그램에 몰려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하고 참여인사도 대폭 늘려나갔습니다. 현재는 200여 분이 참여하고 계신데, 한 번 사이트에 들어와보면 아시겠지만, 주제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수준 또한 대단합니다. 국내 중소기업에서 그 아이디어를 사들여 산업화에 나서고 있을 정도입니다.

▶ 고경력 과학기술자 활용 프로그램은 과학계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운영계획은

앞으로는 이분들을 산업현장에 대거 파견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기술개발에 애로사항이 많은 중소기업에 기술 지도를 해주고 전문과학기술 지식을 필요로 하는 대기업에는 자문을 해주는 것입니다. 기업들로부터 아주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자는 정년이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년퇴직한 원로 과학기술인들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서 매우 보람이 있어 좋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한 원로 과학기술자를 우대하는 캠페인도 함께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원로 과학기술인이 우대받아야만 진정한 과학기술인들의 위상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또한 이들이 갖고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참여정부는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KISTI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과학기술 중심사회'란 과학기술이 모든 국가정책에 우선하고, 과학기술인이 국정운영의 중심에 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공계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의미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과학기술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의 역량은 '첨단 기술력

및 고급두뇌의 확보'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중심사회의 구축' 방안이 과학기술을 통해 국가의 기반을 확립하고 장기적으로는 삶의 질적 향상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란 점에 과학기술인의 한사람으로서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합니다. 단지 인기 위주의 정책이 아닌 국가 백년대계의 초석이 되는 틀이 되길 기대합니다.

또한 새로이 과학기술계를 이끌어가게 되신 오 명 장관님은 평소 존경해왔는데, 과거 정보통신부 장관시절부터 추진하였던 여러 정책들이 모두 좋은 결실을 본 것으로 보아 과학기술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위하여 많은 성과를 이루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KISTI도 국가의 중추적 지식정보 인프라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의 요구에 맞게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여 고객의 가치창조를 추구하는 국가과학기술 혁신의 중심기관으로 바로 서고, 미래지향적으로 가기 위해 지속적인 전환을 거듭하겠습니다. 슈퍼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국가 R&D투자 중심의 지원도 아끼지 않겠으며,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수요자의 근접지원도 병행하겠습니다.

▶ 원장님의 '과학에 대한 철학'은 무엇이며, 취미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가족관계는

인류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모든 문명이 발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언제나 과학기술의 발달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취미는 대전과 서울을 오가며 고차근무를 하고 있어서 체력 강화를 위한 테니스나 등산에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으로는 저의 든든한 동반자인 처와 군복무중인 아들과, 그리고 대학에 다니고 있는 딸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네 식구는 모두가 이공계출신이란 걸 말씀드립니다. ㉔

대담_정진의 편집위원